

대구와 경북은 도로가 단단하다. 직선으로 뻗은 산업도로도 있고, 산을 감아도는 능선길도 있고, 강을 따라 미끄러지듯 이어지는 제방길도 있다. 도심과 산, 강과 바다가 한 지역권 안에 들어 있어 한나절 드라이브만으로도 풍경의 결이 몇 번씩 바뀐다. 거기에 밤 풍경이 더해지면 일정이 자연스럽게 길어진다. 낮에는 시골길과 고갯길을 타고 카페나 시장에 들렀다가, 해가 지면 전망대에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는 식이다. 아래 코스들은 직접 다니며 겪은 속도감, 도로 상태, 주차 편의, 화장실, 사진 포인트 같은 현실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추렸다. 네비의 예상 시간과 실제 체감 시간 사이의 간극, 주말 교통의 변수, 계절별 빛의 각도까지 함께 적었다.

금호강을 따라 도심에서 바깥으로, 대구 강변 드라이브

대구 시내를 벗어나는 가장 부드러운 길은 금호강 북쪽 제방로다. 동촌유원지에서 화랑교, 아양교를 지나 침산교 방향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아침과 해질녘에 분위기가 다르다. 오전에는 자전거와 조깅 인파가 많아 속도를 줄이는 편이 마음이 편하다. 노을이 지기 시작하면 강 표면에 주황빛이 깔리고, 교량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난다. 라디오를 낮춰 놓고 50 km/h 언저리로 흐르듯 가다 보면, 도심과 자연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순간이 있다.

주말 오후에는 동촌유원지 인근 주차장이 금세 찬다. 차를 강변이 아닌 내륙쪽에 세우고 산책로로 걸어 내려오면 시간도 절약된다. 동촌유원지에서 팔공산 방향으로 고개를 들어 보면, 해가 가라앉을수록 능선 윤곽이 날카롭게 살아난다. 이때 사진을 찍으려면 망원 대신 35mm 전후 화각이 적당하다. 다리 난간을 프레임 삼아 사람과 차가 교차하는 순간을 기다리면 도시 풍경이 더 입체적이다.

야경을 위해서는 금호강을 벗어나 해맞이 전망대나 앞산 방향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 금호강 근처에서 바로 야경을 건지려면 아양기차길이 무난하다. 옛 철교를 보행교로 바꾼 곳이라, 차는 주변 공영주차장에 두고 도보로 올라야 한다.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는 체감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니, 늦가을과 겨울에는 얇은 겉옷을 추가하는 편이 낫다.

팔공산 순환도로, 사계절이 분명한 고도차의 맛

대구 동쪽, 팔공산 순환도로는 사계절 내내 표정이 바뀐다.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짙은 녹음,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새벽 상고대까지 운이 좋으면 모두 만날 수 있다. 산문을 지나 조금만 올라가면 차의 RPM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급경사는 거의 없지만, 연속 코너가 이어져 운전의 리듬을 타야 한다. 초행이라면 속도계를 40에서 60 사이로 고정해 놓고, 뒤차와의 간격을 넉넉히 두는 것이 마음 편하다. 휴일 오전, 라이더들과 자전거가 많아지는 시간대에는 중앙선 넘어오는 차가 없는지 미리 시야를 넓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동화사 입구를 지나 갓길에 차를 세울 수 있는 포인트가 몇 군데 있다. 지도에 표시된 공식 전망대가 아닌, 도로 밖으로 살짝 열린 공터들이다. 다만 비 오는 날에는 흙바닥이 미끄럽고, 낙엽 쌓인 계절에는 진입각을 잘못 잡으면 타이어가 헛돈다. 안정적으로 서고 싶다면 동화사 주차장이나 갓바위 방향 공영주차장을 추천한다. 그들이 많은 만큼 여름에도 엔진룸 [대구 휴게텔](#) 열이 천천히 빠진다. 잠깐 쉬어 갈 때 보닛을 열어 두면 열화 관리에 도움이 된다.

해가 기울면 산등성이 위로 남동쪽 하늘이 먼저 어두워진다. 팔공산에서 야경을 바로 보려면 고도에서 내려다보는 빛이 아니라, 산 그림자 뒤로 사라지는 빛을 보는 셈이다. 야경 전망대로는 앞산이나 강정보가 더 명확한 선택이지만, 겨울철 맑은 날 팔공산 능선에서 내려다본 대구 분지는 별이 뜨기 전, 짧은 청색 시간대가 아름답다. 미세먼지가 덜한 날에는 서쪽 끝까지 시야가 열린다.

비슬산 자락과 달성의 강변, 남쪽을 타는 완만한 곡선

대구 남쪽으로 차를 돌리면 비슬산과 낙동강이 서로를 비껴나가며 만들고 부수는 풍경이 이어진다. 비슬산 공룡발자국지나 대견사지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은 도로 폭이 좁아지는 구간이 있어 왕복 차량 교행에 신경을 써야 한다.

대신 비슬산 자락을 타고 내려오며 달성 화원 들판과 강의 굽이, 송전탑이 빛나는 직선들이 동시에 들어온다. 산과 평야, 인공 구조물이 한 프레임에 담기는 곳은 흔치 않다.

해 질 녘에는 강정보 쪽으로 넘기면 좋다. 강정보 디아크는 이미 많은 사진이 찍힌 장소지만, 그만큼 접근이 쉽고 주차가 편하다. 대형 주차장, 공중화장실, 주변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가족 단위로도 부담이 없다. 노을 시간에 강 위로 난 길을 걷다 보면, 자전거와 킥보드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길 안쪽으로 걷는 습관을 잡아두는 게 안전하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수면에 잔물결이 일면 야경을 담을 때 반사가 부서지고, 잔잔하면 빛이 길게 늘어난다. 바람 예보가 2 m/s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사진을 남기기 좋다.

앞산 순환도로와 전망대, 대구 야경의 정면 관람석

대구 야경을 찾는다면 앞산이 중심이다. 앞산 순환도로는 경사가 일정하고, 중간중간 전망 포인트와 주차 공간이 있어 접근이 쉽다. 앞산전망대와 패밀리파크 일대는 주말 저녁이면 붐빈다. 가능하면 해지기 30분 전에는 도착해 주차를 먼저 잡는 편이 좋다. 해가 산등성으로 떨어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다. 어스름이 시작되면 도시의 황색 가로등과 흰색 헤드라이트가 층을 이룬다. 대구 수성못에서 올라왔다면 수성구의 빛무리가 가까워져 사진에 깊이가 생긴다.

앞산전망대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있어 접근성이 좋다. 다만 사람의 흐름이 많아 삼각대를 펼치기 어렵다. 손떨림 보정이 좋은 렌즈나 감도를 조금 올리는 쪽으로 세팅을 바꾸면 실전에서 실패 확률이 줄어든다. 겨울철에는 전망대 바닥이 유리라 체감 냉기가 올라온다. 양말을 두 겹 신으면 오래 서 있어도 발이 덜 시리다. 바람이 심한 날에는 난간을 짚고, 핸드폰은 스트랩으로 손목에 감아두면 안전하다.

앞산 순환도로 자체의 드라이브 재미도 쏠쏠하다. 도심을 등지고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백미러에 불빛이 가득 들어오는데, 그때 라디오 볼륨을 조금만 낮추면 엔진음이 산에 반사되어 리듬이 고르게 잡힌다. 연비에 얽매이지 않고, 브레이크를 짧게 여러 번 밟아 열을 분산시키는 편이 내리막에서 유리하다.

경주 외곽 순환과 감은사지, 동해 쪽 빛을 건너는 한나절

대구에서 경주까지는 고속도로 기준 1시간 전후다. 굳이 고속도로를 타지 않고 현풍 - 청도 - 경주로 이어지는 국도를 타면 시속 70 언저리의 균일한 흐름을 즐길 수 있다. 경주 도심은 주말 관광객으로 혼잡하므로, 외곽을 도는 것을 권한다. 양남 주상절리, 감포항, 감은사지 일대를 묶으면 바다와 사찰터, 농촌길이 하나의 고리로 이어진다.

해 질 녘 감은사지는 늘 고요하다. 두 기의 삼층석탑이 서쪽 빛을 맞아 서서히 붉어지고, 뒤편 야산의 그림자가 지속적으로 당겨온다.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모두가 말수를 줄인다. 바람이 적은 날에는 석탑 표면의 온기가 오래 남아 저녁 기온이 떨어져도 현장에서 버틸 만하다. 경주 시내의 야경은 가로등이 낮고, 고도 제한으로 스카이라인이 낮아 도시적 화려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신 보문호 일대를 천천히 돌며 수면 반사와 빛의 그라데이션을 보는 편이 낫다. 보문호수교 근방에서 삼각대를 펴면, 호수 위를 가로지르는 조명들이 점선처럼 이어진다.

경주에서 동해로 더 뻗어나가면 감포에서 포항 구룡포까지 해안도로가 이어진다. 밤바다의 조도는 도시 야경과 성격이 다르다. 인공광이 적고, 수평선이 어둡게 늘린다. 파도의 소리에 의존하게 되니 운전 피로가 어느 순간 몰려온다. 장거리면 중간에 구룡포 시장에 들러 따뜻한 국물로 몸을 깨우는 편이 좋다. 운전대를 다시 잡았을 때 손가락 힘이 돌아오는 시간이 분명히 짧아진다.

포항 영일대와 스카이워크, 바다 위의 야경

포항의 밤은 제철소의 불빛으로 유명하지만, 드라이브와 산책을 함께 하려면 영일대해수욕장이 편하다. 해변을 따라 주차 공간이 넉넉하고, 스카이워크와 영일대 누각, 해파랑길 표식이 한 번에 모여 있다. 해가 바다로 떨어지는 날은 많지 않다. 포항은 동해라 해가 뜨는 바다다. 야경을 보려면 해가 사라진 이후의 색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 하

들의 파랑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인공광이 올라오는 시점이 짧게 겹친다. 노출을 길게 끌면 누각과 스카이워크의 윤곽이 살아나고, 파도는 우유빛으로 평평해진다.

야간에 해변을 걸으면 바람이 세다. 자동차에 남겨 둔 재킷이 그리워지기 쉬운 동선이다. 차에서 멀어지기 **대구 스파** 전에 손전등 앱을 켜 본다. 모래사장을 가로지르다 보면 낮은 돌기둥이나 로프가 갑자기 나타난다. 스니커즈 밑창으로는 모래가 쉽게 들어오니, 겨울에는 발목 덮는 신발이 편하다. 주차장에서 바로 바다로 이어지는 접근성 덕에, 사진 촬영 장비를 옮기기 쉬운 것도 장점이다.

문경새재와 단산, 고갯마루에서 맞는 별과 불빛

문경은 산세가 짝 찬 곳이다. 중앙고속도로와 3번 국도를 이용하면 접근은 쉬운데, 본격적으로 재미를 보려면 문경새재 도립공원으로 향한다. 옛길의 완만한 경사 덕분에 걷는 사람들은 묵묵히 산을 탄다. 운전자는 공원 입구에 차를 두고 걸어 올라야 한다. 해가 넘어가는 시간에 1관문이나 2관문 쪽에 있으면 숲이 먼저 어두워진다. 이때는 야경보다는 별과 하늘을 보는 시간이 된다. 도심 불빛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광해가 적다. 초승달 즈음이면 은하수는 어렵더라도 별무리가 또렷하다.

야경을 보려면 문경 시내 쪽으로 내려와 단산이나 마성면 일대의 낮은 전망 포인트를 찾는다. 단산은 정상부가 협소해 차량 접근은 무리다. 대신 산자락에 난 임도 초입에서 도심 불빛을 내려다볼 수 있다. 초행자에게는 네비 포인트가 불친절하다. 현지에서 편의점에 들러 물과 따뜻한 음료를 사며 점원에게 길 상태를 묻는 편이 훨씬 빠르다. 비온 뒤에는 진흙이 말라 딱딱하게 굳어 승용차 하부가 긁히기 쉽다. 무리하지 말고 아쉬워도 한두 굽이 아래에서 보는 걸 권한다.

안동호와 월영교, 물 위를 걷는 야간 산책

경북 북부로 올라가면 안동의 물과 목재가 만든 장면이 있다. 월영교는 한때 국내 최장 목책교로 알려졌고, 지금도 밤이면 조명이 은은하다. 안동댐을 지나 안동호를 비스듬히 끼고 달리면 가로등이 적어 도로가 한층 어둡게 느껴진다. 차의 전조등이 만든 빛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이게 된다. 이 리듬이 나쁘지 않다. 시속 60을 넘기지 않고도 도로의 곡선과 엔진의 박자가 맞아떨어지면, 도착했을 때 피로가 덜하다.

월영교 주변 공영주차장은 주말 저녁에도 회전이 빠르다. 다리 위에서는 셔터 소리가 자주 들리지만, 소란스럽지 않다. 물 위의 조명 반사가 길게 늘어서 사진이 쉽다. 다만 늦가을부터 이듬해 초봄까지는 물안개가 올라와 콘트라스트가 무뎈다. 이런 날은 사람을 프레임에 넣어 스케일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결과물이 나아진다. 다리 아래 벤치에서 온기를 회복하고, 늦은 시간에는 안동구시장 쪽으로 내려가 국밥집에서 간단히 속을 달래면 돌아오는 길이 덜 멀게 느껴진다.

영덕 블루로드와 강구항, 파란 선과 붉은 불빛의 대비

영덕의 해안도로는 파란색 블루로드 표식이 곳곳에 박혀 있다. 차로 달리다가도 주차 후 수백 미터 걷는 구간이 자연스럽게 섞여 드라이브에 리듬을 준다. 강구항의 붉은 대게 조형물과 상점 간판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항구의 저녁이 시작된다. 도로 폭이 좁은 편이라 배달 오토바이가 곡선으로 파고든다. 사이드미러를 넓게 열어두되, 문을 열 때는 꼭 뒤를 확인해야 한다. 차박을 고려한다면 해맞이공원 쪽은 바람의 직격을 받는다. 차체가 흔들릴 정도의 돌풍이 간헐적으로 들어온다. 루프박스가 달린 차량은 더욱 민감하다. 방풍벽이 있는 내륙 쪽 주차장을 고르면 잠은 편해진다.

야경은 항구 쪽에서 잡는 것이 확실하다. 물결이 잦아드는 시간대, 대게 가게의 붉은 네온이 수면에 풀린다. 노출을 길게 가져가면 배의 항해등이 선처럼 이어지고, 노출을 짧게 자르면 간판의 색이 또렷해진다. 사진을 찍지 않더라도, 해풍을 맞으며 따뜻한 어묵 국물 한 잔을 들이키는 순간이 이 지역 드라이브의 클라이맥스가 되곤 한다.

구미 금오산과 낙동강변, 산업도시의 다른 얼굴

구미는 공단의 직선과 낙동강의 곡선이 교차하는 도시다. 낮에는 금오산 도립공원으로 올라가 호수와 능선을 본다. 돌계단이 많아 등산화를 추천하지만, 드라이브라면 금오산 아래 주차장에 차를 두고 산책만 해도 충분하다. 노을이 질 무렵에는 낙동강변으로 내려가 강정보와는 다른 촘촘한 조명을 만난다. 다리 아래 차도를 따라 천천히 흐르다 보면 멀리 공장의 조업등이 깜박인다. 인공의 불빛이 단조로운 리듬을 만들어 주행 리듬과 맞물릴 때가 있다.



구미의 야경 포인트는 다리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제방 상단에 낮은 공원과 운동기구가 늘어진 구간이 많은데, 가로등 높이가 낮아 인물 사진을 찍기 좋다. 밤 공기가 차가운 날에는 숨이 짧아지니, 엔진을 끈 차 안에서 잠시 몸을 데우고 다시 나오는 식으로 템포를 조절한다. 혼자보다는 둘이 움직이면 장비를 지키고 옷을 챙기기가 훨씬 수월하다.

김천 부항댐 순환, 매끈한 아스팔트와 고요한 수면

김천 부항댐은 운전 자체가 즐거운 곳이다. 댐 주변을 도는 순환도로는 노면이 매끈하고, 코너가 일정하게 이어진다. 차가 많지 않아 운전자의 컨디션을 확인하기에도 좋다. 다만 속도를 과하게 올리면 도로의 리듬이 오히려 지루해질 수 있다. 추천은 60에서 70 사이, 엔진이 가장 편안해하는 구간이다. 전망데크 몇 군데가 정비되어 있고, 야간 조명도 절제되어 있다. 별과 댐의 조명이 함께 들어오는 시간대가 짧게 존재한다. 구름이 열린 날, 수면 위에 별빛이 번지는 순간을 기다리면 도시 야경과는 다른 만족을 준다.

주차장은 넓지만 화장실 간격이 길다. 야간 이용을 고려하면, 지도에서 화장실 위치를 미리 저장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겨울철에는 노면 결빙이 빨리 시작된다. 일기예보의 최저기온과 별개로, 댐 주변의 체감 온도는 2도 정도 더 낮다고 보면 맞다. 체인이 필요할 정도의 눈은 드물지만, 올시즌 타이어라도 트레드가 얇다면 이른 시간에 내려오는 편이 안전하다.

영천 운주산과 보현산 천문대 외곽, 어둠의 밀도

영천은 밤이 진하다. 보현산 천문대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고, 차량 진입도 시간에 제약이 있다. 대신 천문대로 이어지는 도로 중간중간에 작은 갓길과 쉼터가 있다. 가로등이 거의 없어 별을 보는 데는 좋지만, 운전은 신경을 더 써야 한다. 하향등을 유지하고, 코너 진입 전에 브레이크를 끝내두는 기본이 중요하다. 어둠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차의 움직임이 불쑥 커진다. 운주산 임도 초입은 비포장 구간이 있어 승용차는 피하는 게 맞다. 역지로 들어갔다가 돌아오면서 범퍼 하부가 긁히는 일이 잦다.

별을 보러 오는 차량들이 정차하며 실내등을 켜다. 이 불빛 하나로도 눈의 암순응이 크게 깨진다. 사진을 계획한다면 빨간 젤을 씌운 손전등을 쓰고, 스마트폰은 밝기를 최저로 낮춘 뒤 알림을 꺼 둔다. 어둠을 존중하는 태도가 곧 안전으로 이어진다.

대구 시내의 짧은 코스, 수성못과 범어, 그리고 동촌으로

멀리 나갈 수 없는 밤이라면, 시내에서 짧게 즐기는 드라이브가 답이 된다. 수성못을 천천히 한 바퀴 돌고 범어네거리로 이어가면 조도와 색감이 차려로 바뀐다. 수성못 주변은 노란 계열의 조명이 주를 이루고, 범어 일대는 상업지구의 흰빛이 강하다. 동촌으로 빠져 금호강 다리를 하나 건너면 갑자기 시야가 넓어지고, 바람이 차 안으로 두세 도 더 차갑게 들어온다. 이 짧은 변화만으로도 운전의 리듬이 환기된다.

수성못은 주차 회전이 빨라 10분, 길어도 20분 안에 자리가 난다. 호수 둘레길은 실내 데이트 코스의 연장선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차창 너머로 보는 풍경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람을 피해 정차해 사진을 찍고 싶다면, 금지구역 표지를 확인하고, 비상등을 켜 채로 머무르는 시간을 1분 이내로 줄이는 게 기본이다. 뒤차가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간격을 두는 매너도 필요하다.

주행 리듬과 휴식, 장거리에서 컨디션 유지하기

드라이브는 결국 시간 싸움이 아니라 컨디션 싸움이다. [대구 마사지](#) 대구와 경북의 도로들은 고저차와 직선, 곡선이 적절히 섞여 있어 집중력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피로가 몰리는 지점이 존재한다. 개인적으로는 90분 주행 - 15분 휴식을 기본 단위로 쓴다. 커피만으로 버티는 방식은 초반에는 괜찮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심박이 불안정해지고 판단이 둔해진다. 미지근한 물과 간단한 탄수화물을 준비해 두면, 필요한 순간에 바로 꺼내 먹고 마실 수 있다. 주차 후 의자를 뒤로 젖히기 전에 창문을 한 뼘 열어 내부 습기를 빼면, 다시 출발할 때 유리 김서림이 덜하다.

장거리에서는 네비의 최단시간 경로가 최선은 아니다. 공사 구간, 톨게이트 병목, 주말 특정 시간대의 램프 혼잡을 감안하면, 10분 느려도 스트레스가 덜한 길이 결과적으로 피로를 줄인다. 경북 북부는 야간에 주유소가 이른 시간에 문을 닫는 편이다. 반 칸 아래로 떨어지면 바로 보급하는 습관을 들여두면 불필요한 긴장을 피할 수 있다.

안전과 예절, 야경 명소에서의 기본

야경 전망대와 강변, 해안에서 공통으로 지켜야 할 기본이 있다. 첫째, 삼각대와 장비는 통행을 방해하지 않게 배치한다. 난간 중앙에 벌려놓은 삼각대는 다른 방문객의 시야를 막고, 아이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을 만든다. 둘째, 음악은 이어폰으로 듣는다. 자동차에서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는 순간, 그곳의 공기 밀도가 바뀐다. 셋째, 드론은 비행금지구역과 야간 비행 규정을 확인한다. 대도시 주변과 공항 반경, 군사보호구역이 촘촘하게 겹친다. 넷째,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다. 밤에는 작은 쓰레기가 더 잘 보이지 않는다. 나중에 아침 등산객과 산책객이 불편함을 겪는다.

아래는 밤 드라이브 전 준비물에 대한 짧은 체크리스트다.

- 차량: 타이어 공기압, 워셔액, 비상삼각대, 휴대용 손전등
- 사람: 얇은 겹옷, 보온 텀블러, 간단한 간식, 휴지와 비닐봉투
- 장비: 보조 배터리, 여분 메모리, 미끄럼 방지 매트, 작은 수건

계절별 포인트, 빛과 공기의 변화 읽기

계절이 바뀌면 같은 장소도 다른 표정을 짓는다. 봄에는 팔공산과 앞산의 벚꽃이 교통을 정체시킨다. 꽃이 만개하기 2, 3일 전이 오히려 사진과 드라이브 모두에게 좋다. 잎의 초록과 꽃의 흰빛이 섞이는 시기가 짧고 강렬하다. 여름에는 강정보와 포항 영일대처럼 수면이 있는 곳이 시각적으로 시원하다. 모기와 습도가 변수라, 저녁 8시 이전에 주요 포인트를 훑어두고 어두워지면 이동을 줄인다.

가을에는 문경새재와 팔공산의 단풍이 정점이다. 주말 오전 10시 이후에는 주차가 쉽지 않다. 해가 짧아지는 만큼, 오후 3시부터 빛이 예뻐지기 시작한다. 5시 이전에 전망대에 올라 있으면 여유 있게 프레임을 고를 수 있다. 겨울에는 앞산과 금호강변의 공기가 맑아지고, 대구 분지의 야경이 유난히 선명하다. 다만 블랙아이스가 도심 외곽 그늘진 구간에서 자주 생긴다. 다리 진입 전, 속도를 사전에 낮춰라. 차가 미끄러질 때는 브레이크를 깊게 밟지 말고, 스

티어링을 크게 꺾지 않는 것이 상식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몸이 먼저 반응한다. 미리 상상하고 손과 발의 반응을 머릿속에서 리허설해 두면 급박한 순간에 도움이 된다.

하루 코스 제안, 흐름이 좋은 조합 몇 가지

하나의 루트로 정리하면 움직임이 더 매끄럽다. 아래는 체력과 빛의 흐름을 고려한 조합이다.

- 도심 - 강변 - 산: 동촌유원지에서 강바람을 맞고, 팔공산 순환도로로 올라 숲 냄새를 맡은 뒤, 해지기 전 앞산전망대로 이동해 야경을 본다.
- 남쪽 곡선: 비슬산 자락을 타고 내려와 화원 들판을 가로지르고, 강정보 디아크에서 노을과 야경을 잇는다.
- 바다와 고요: 대구에서 경주 외곽을 스쳐 감포항까지 내려가 저녁을 먹고, 포항 영일대에서 바다 위의 야경을 담는다.

각 코스는 왕복 150에서 250킬로미터 사이다. 휴식 시간을 포함하면 6시간에서 9시간이 적당하다. 동승자가 있다면 야간 구간은 대화를 줄이고 음악의 볼륨을 낮춰 운전자의 감각을 살려주는 편이 안전과 즐거움 모두에 좋다.

마무리, 풍경은 기다림의 밀도로 완성된다

드라이브와 야경은 결국 기다림의 예술이다. 노을이 서서히 사라지고, 첫 가로등이 켜지고, 창문에 서리 모양이 나타나고, 바람이 방향을 바꿀 때까지 몸을 그 자리에 두는 일이 필요하다. 대구와 경북의 길들은 이런 기다림을 지루하게 만들지 않는다. 고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과, 천천히 스며드는 풍경이 하루 안에 교차한다. 차 안에서 손난로의 온도를 느끼며, 눈앞의 빛이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을 보는 순간, 여정이 목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운전은 수단이지만, 그 리듬이 풍경을 해석하는 언어가 되기도 한다. 대구와 경북의 길 위에서는 이 언어를 배우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다. 기다리는 법만 알면 된다.